

세례와 새 삶 (로마서 6:1-23)

‘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’ (6:4)

로마서 6 장은 ‘세례’라는 표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‘새 삶’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. 6 장 1 절의 질문(“그렇다면 은혜가 많아진 곳에 죄도 넘치는가?”)은 앞서 은혜와 소망을 강조한 5 장 20-21 절을 들은 상대가 제기할 만한 반론이다. 그러나 바울은 단번에 그것이 논리적 오류임을 지적하면서, 세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옛 인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지 차근차근 펼쳐 보인다.

세례를 통한 연합(2-11 절)

2-4 절에서 바울은 “한 번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”는 원칙을 제시한다.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‘죽은 자’가 되어, 더 이상 죄가 통치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.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은, 세례로 그분과 결합된 이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부여하신다. 5-7 절은 이 내용을 반복하며 ‘죄의 몸’이 이미 죽었음을 강조한다. 옛 사람(아담 안의 인류 전체)을 지배하던 자아는 세례의 상징적 장례식에서 폐기되었다. 이어 8-11 절에서는 그리스도의 ‘부활 참여’가 덧붙여진다. 새 생명의 완성은 아직 미래지만, 그 힘이 이미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. 그리스도께서 죄의 요구를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, 세례 연합자는 부활 생명 안에 거하여 “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 것”을 명백히 선언받는다.

새 삶의 수행(12-14 절)

새로운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결코 무책임히 살 수 없다. 12-13 절은 “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”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을 요구한다. 이는 수동적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과 의도의 동참을 전제한다.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조장하는 폭력적 권위가 아닌, 은혜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위한 지침으로 재편된다. 14 절은 “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”는 선언으로, 실제적 삶에서의 연속적 승리를 확신시킨다.

종의 주인 교체: 죄에서 의로(15-23 절)

16 절 이하에서 바울은 ‘두 주인’—죄와 의(하나님)—사이의 선택 문제를 제시한다. 사람이 어느 세력에 자신을 종으로 내어맡기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열매가 달라진다. 19 절은 일상 속에서 불의를 섬겼던 삶을 벗어나 의를 섬기도록 촉구한다. 20-23 절에서는 노예 신분이 바뀐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한다. 옛 주인인 ‘죄’의 삶은 사망이지만, 새 주인 ‘하나님’께 복종하여 드리는 섬김은 거룩함(성화)을 이루고 영생으로 이끈다. 결국 세례 연합으로 시작된 ‘지배권 변화’가 삶의 전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며, 새 삶의 여정이 완성이로 나아감을 확증한다.

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연합을 상징하는 '새 삶의 출발선'이다. 이 연합은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,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 삶을 인도한다.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결단과 지속적 순종은 은혜로 변화된 지배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. 결국 로마서 6 장은 세례를 통해 일어난 근본적 '정체성 변화'가 행위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,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성화를 추구하도록 초대한다.